

야구 유니폼의 이미지 평가에 관한 연구

표 유 경 · 이 명 희*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Image Evaluation of Baseball Uniform

Yu-Kyung Pyo · Myoung-Hee Lee*

Dept. of Clothing & Textiles, Sungshin Women's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ungshin Women's University*
(2000. 8. 16 투고)

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of image evaluation of baseball uniform by uniform design and perceiver's gender, and to examine how baseball uniform preferences vary according to perceiver's gender. Stimuli consisted of 12 color photographs of a male model wearing a baseball uniforms which were manipulated according to the color of shirts and pants. A semantic differential scale of 23 items were used to evaluate the image of the stimuli. Subjects were 288 males and females.

Five dimensions derived to account for the image of baseball uniform. These were manly, ability, activity, preference, and visibility. Wearing of red shirt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evaluation of ability, activity, and visibility. Dark blue shirt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evaluation of preference. Grey uniforms had negative effects on the evaluation of ability, activity, and visibility. Men liked white uniforms and vertical stripes uniforms of black and white more than did women. Women liked dark blue shirts more than did men.

Key Words : baseball uniforms, perceiver's gender, image evaluation, uniform preferences : 야구 유니폼, 지각자의 성별, 이미지 평가, 유니폼 선호도

I. 서론

현대 물질문명의 발달은 소득의 증대와 더불어 여가시간을 증가시켰고 여가선용의 방법으로 스포

츠를 발전하게 하였다. 스포츠가 역할을 확대하는 동안 유니폼도 함께 발달하여 왔으며, 유니폼은 스포츠에서 필수품이 되었다. 상대를 구별하고 몸놀림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착용된 유니폼

은 초기에는 인체구조와 운동역학에 따라 디자인이 구성되었으나, 현재는 기능성은 물론 패션성까지 가미된 다양한 유니폼이 선보여지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다양한 스포츠가 행하여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프로야구는 1982년 3월 27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18년째 접어들면서 그 수준이 점점 향상되어 가고 있다. 야구는 다른 경기보다 갖추어야 할 유니폼의 종류가 다양하며 복장의 규칙도 엄격하다. 프로야구 유니폼은 홈경기용과 원정경기용의 구분이 있으며 유니폼 외에도 모자, 언더셔츠, 스타킹, 헬멧 등 액세서리까지도 규칙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각 구단별로 색, 로고의 구분이 확실하며 한 시즌에 132경기의 장기 레이스를 펼치기 때문에 유니폼은 다른 경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관중들에게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편 의복의 시각적 지각은 개인의 가치와 태도 그리고 의복 흥미와 인식에 근거한 의복 평가를 수반하고, 의복 이미지로 표현이 된다(Kaiser, 1985). 의복에서 표현되는 이미지는 의복이 전달해 주는 전체적인 느낌으로 의복의 선, 형태, 재질, 색채 등의 디자인 요소들의 시각적 특징에 따라서 달리 표현되며 타인에게 사회적 지위, 직업, 역할, 성격특징과 지각되는 상황을 규정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Horn & Gurel, 1981). 이와 같은 의복의 이미지 지각은 지각대상자를 평가하는 지각자의 변인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데 지각자 변인으로 주로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차이가 규명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프로야구단의 유니폼 디자인을 조사하여 유니폼 디자인과 지각자의 성별에 따른 야구 유니폼의 이미지 평가의 차이를 규명하고, 야구 유니폼의 선호도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기초로 바람직한 이미지의 야구 유니폼 제작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의의를 둔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99년 현존하는 국내 8개의 프로야구 구단의 유니폼 디자인을 조사하여 그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유니폼 디자인 및 성별에 따른 야구 유니폼 이미지 평가의 차이를 밝힌다.

셋째, 성별에 따른 야구 유니폼 선호도의 차이를 조사한다.

넷째, 성별에 따른 야구 유니폼에서 중요시되는 이미지의 차이를 조사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야구와 야구복의 역사

야구의 유니폼은 1849년 뉴욕 니커보커스가 제일 처음 착용하였다. 그 복장은 흰 셔츠에 크리켓 선수들이 입는 것과 같은 푸른색 긴 바지를 입고 흰 벨트와 흰 모자를 쓰는 것이었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팀 전원의 통일된 야구복의 시초이다(Schlossberg, 1980).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869년, 최초의 프로 팀인 신시내티 레드 스타킹스(Cincinnati Red Stockings)는 붉은색과 흰색을 사용한 유니폼을 맞춰 입었으며 이때부터 정강이가 드러나는 짧은 바지에다 긴 스타킹을 신는 기본 유형이 탄생하였다(Schlossberg, 1980). 이후 유니폼의 형태는 계속 발전하여 셔츠와 바지, 스타킹, 모자로 나타났으며 1900년 이전까지의 대표적인 스타일은 칼라가 달린 상의에 타이를 매고 이전에 비해 길어진 바지 위로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이었다. 1900년부터 미국 프로야구는 급속히 확산되어 각 팀마다 일정한 디자인과 색으로 통일된 유니폼을 고안하여 다른 팀과 구별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되었다.

1960년대에 와서 남성들도 밝은 색의 의복을 착용하게 되면서 야구 유니폼에도 종래의 흰색 또는 회색의 플란넬 유니폼이 아닌 새로운 소재와 스타일이 나타나게 되었다(Schlossberg, 1980). 이때부터 유니폼은 운동복에서 팀의 상징적 수단으로 더 강조되어 현재의 유니폼으로 이어져 왔다.

우리 나라에서는 초창기인 1905년까지 베짚방이에 짚신 차림으로 야구를 하였으며 국내에 제일 처음 야구 유니폼을 선보인 것은 1909년 모국을 방문한 동경 유학생 야구단이었다. 유학생들이 입은 플란넬 유니폼을 본 황성 YMCA 선수들은 이듬해인 1910년부터 유니폼을 갖추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가슴에 YMCA라는 영자 로고를 새긴 유니폼을 만들어 입게 된 것이다(유홍락, 천일평, 이종남, 1999).

그 후 한국 야구는 1920년에 전조선야구대회를

개최, 야구경기도 조직적인 대회로 발전하기에 이르렀고 해방과 더불어 실업대회를 중심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60년대 서울고교야구연맹이 출범, 고교야구 붐이 일기 시작하였다. 이 고교야구 열기는 국민들에게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서 야구 발전의 기폭제가 되었고 1982년에는 프로야구가 출범하게 되었다.

미국, 일본에 이어 전세계에서 세번째로 프로야구를 출범시킨 한국은 이를 계기로 야구가 국민 대중 스포츠로서 자리를 더욱 튼튼히 하게 되었다. 또한 수준 높은 경기력을 갖춘 선수들이 해외로 적극 진출함으로써 스포츠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새롭게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한국의 프로야구단은 6개 구단으로 출범하여 1999년 현재는 8개 구단이 양대 리그로 나누어 경기를 펼치고 있다. 오랜 변천을 거쳐 오늘날 야구 경기 시 착용되는 유니폼은 언더셔츠, 상의(shirts), 하의(pants), 벨트, 점퍼, 윈드 브레이커(wind breaker), 스타킹, 양말, 헬멧 등이 있으며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유니폼은 각 팀의 개성에 맞게 그 색과 디자인이 선정되어진다.

2. 국내 프로야구 유니폼의 디자인 특성

국내에는 1999년 현재 8개의 프로야구단이 있으며 그 팀 이름 및 본거지는 <표 1>과 같다. 99시즌 프로야구 유니폼 디자인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니폼 실물자료, 신문, 팬 북, 야구단 홈페이지, 야구 관련 사이트(www.seoul.co.kr)의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8개 구단의 유니폼 디자인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 국내 프로야구단의 명칭 및 본거지

구단명	본거지
두산 베어스	서울
롯데 자이언츠	부산, 경남
삼성 라이온즈	대구, 경북
쌍방울 레이더스	전주, 전북
LG 트윈스	서울
한화 이글스	대전, 충남북
해태 타이거즈	광주, 전남
현대 유니콘스	인천, 경기, 강원

선수들은 봄, 가을에는 터틀넥과 긴 소매의 언더셔츠 위에 춘추복 소재의 유니폼을 착용하고, 여름에는 반팔의 언더셔츠 위에 하복 소재의 유니폼을 착용하였다. 소재는 봄, 가을용 유니폼은 폴리에스테르 73-75%, 면 25-27%의 혼방 소재였고 여름용 유니폼은 폴리에스테르 100%, 또는 나일론이 7% 정도 포함된 두께가 얇고 기공이 넓은 그물 모양의 소재였다.

홈경기용 유니폼은 모든 구단이 상하의 모두 흰색, 또는 흰색 바탕에 수직 스트라이프가 들어간 것을 입었다. 언더셔츠와 스타킹, 벨트, 스파이크, 모자 등은 대개 같은 색이었으며, 목둘레, 소매 끝, 하의 옆선에는 다른 색의 선 장식을 하였는데 랫셀트림(raschel trim) 또는 니트트림(knit trim)이라고 하는 이 선 장식의 소재는 특수조직의 니트로서 목둘레, 어깨 부위, 하의 옆선 등 신축성이 요구되는 부위에 사용하여, 활동성을 좋게 하고 신속하고 빠른 느낌을 전달하며 하의에 사용시 키가 커 보이는 효과를 주었다.

원정경기용 유니폼은 8개 구단 중 5개 구단이 홈경기용 유니폼에서 상의만 다른 색으로 바꿔 입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롯데 자이언츠, 쌍방울 레이더스는 상하의를 모두 회색으로 바꿔 입는 팀이고, 해태 타이거즈는 상의, 하의를 각각 빨강, 검정색으로 바꿔 입는 팀으로 미국과 일본 프로야구에서도 드문 검정색 하의를 착용하였다. 원정경기용 유니폼 상의는 주로 빨강색, 검정색, 남색, 파랑색, 짙은 녹색 등이었고 목둘레, 소매 끝, 하의 옆선에 흰색, 노랑색, 검정색 등의 선 장식을 사용하였다.

상의의 유형은 7개 구단이 풀오버형이었으며, 현대 유니콘스만이 유일하게 앞트임이 있어 단추가 달린 스타일을 착용하였다. 앞트임이 있는 스타일이 압도적으로 많은 미국 프로야구 유니폼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풀오버 스타일이 대부분인데 선행 연구에서 국내 프로야구 선수들은 경기 중 활동이 편하다는 이유로 풀오버 스타일을 더 선호한다고 하였다(박희연, 1988). 상의의 넥라인 형태는 8개 구단 모두 V-넥라인이었으며 소매도 모두 라글란 소매였다.

3. 의복의 이미지 평가

1) 의복 색과 이미지 평가

의복의 색은 인상형성 관련 변인으로 많이 연구되어 왔는데, Francis와 Evans(1987)는 대인지각시 의복 스타일보다 의복 명도의 효과가 더 크며 짙은 색 의복이 관리적 여성의 능력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선명한 색보다 낮은 채도의 의복이 긍정적인 인상을 준다고 하였다. Winakor와 Navarro(1987)는 여성 의복 스타일에 대한 무채색 자극물의 효과에 관하여 연구하였는데 의복 색의 명도는 비체계적인 영향을, 의복 스타일은 체계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Gibson과 Balkwell(1990)의 직장면접 상황에서 의복과 착용자간의 색 조화에 관한 연구에서는 관리직 지원자가 어울리지 않는 색의 의복을 착용하였을 때 좀 더 창의적인 것으로 지각되었고, 여자들은 어울리지 않는 색을 착용한 판매직 지원자를 좀 더 능력있게 지각한다고 하였다.

차미승(1992)의 연구에서는 의복 색은 현시성과 성숙성 차원에서 의복 형태보다 더 유의한 효과를 보였으며 활동성과 편안성은 색채보다 형태에 의해 영향받았고 빨강은 가장 현시성이 높아 두드러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유경숙(1996)의 연구에서는 빨강은 강한, 따뜻한, 화려한, 발랄한, 정열적, 여성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등 다른 색보다 전달되는 이미지 특성이 많았으며 남색은 강한, 냉정한, 남성적인, 침착한, 어두운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이명희, 강승희(1998)의 연구에서는 지각자는 빨강 재킷을 가장 능력있게 평가하였고 흰색, 회색, 검정 등의 무채색은 능력없게 보았다. 빨강색 재킷은 흰색 및 회색 재킷을 착용한 경우보다 더 호의적으로 지각되었고 어려보이고 발랄하게 지각되었다.

이주현, 조궁호(1995)의 연구에서는 파란색 수트의 착용자는 가장 능력있고 활동적인 사람으로, 빨강 수트의 착용자는 눈에 띄고 화려한 사람으로 지각되었다. 이혜숙, 김재숙(1998)의 한복의 색 조합에 대한 연구에서는 남색이 가장 자신감이 있고 적극적이며 능력있는 것으로 보여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반면 노랑과 회색은 가장 자신감이 없고 무능력한 것으로 나타나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이향미, 김재숙(1998)의 연구에서는 남자의 인상 차원에 대한 영향력은 의복 격식차립보다 의복 색의 영향이 더 컸고 의복 색은 평가적 차원과 사교적 차원에서 유의한 영향을 보였으며 사교적 차원에서 좀 더 큰 인상 차이를 나타내었다. 평가적 차원에서는 검색 의복이 적벽돌색 의복보다 더 지적이고 예의 바르게 보였으며 사교적 차원에서는 적벽돌색 의복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이상에서 볼 때 의복 색은 평가, 능력, 활동성, 사교성 등에 영향을 주며 빨강이 두드러지며, 능력있게 평가되고, 파랑, 남색, 검색 등의 푸른색 계통이 긍정적으로 평가됨을 알 수 있다.

2) 지각자의 성별과 이미지 평가

상대방의 인상을 평가할 때 같은 대상이라도 지각자의 성별, 연령, 성격 등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지각자 나름대로의 흥미, 내적 욕구, 기대가 각각 다르고 또한 독특한 과거 경험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다르며 지각하는 방법과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강혜원, 1995). 이러한 지각자 변인에 따른 의복의 이미지 평가에 관한 연구 중 성별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Rosencranz(1962)는 투사적 기법(projective technique)을 사용하여 의복이 부여하는 상징적 의미를 평가한 결과 여자가 남자보다 의복 단서에 대한 언급이 많았고, 의복이 이야기의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하였다. Sweat과 Zentner(1985)의 연구에서는 드라마틱한 의복은 가장 비전통적인 것으로, 낭만적인 의복은 가장 사회성이 높고 연약한 것으로 지각되었는데, 여자들이 남자보다 각 의복 유형의 이미지에 보다 가까운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eLong, Salusso-Deonier와 Larntz(1983)는 여성의 의복을 통해 표현된 역할의 지각과 관련하여 성별에 따른 여성의 사교복(social dress)과 사무복(business dress)의 지각의 차이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남자는 여자보다 모든 의복을 색시하고 남의 눈에 띄며 형식에 맞고 우아한 것으로 보았고 평가적인 차원에서 여자보다 사무복을 낮게 평가하였고 사교복은 높게 평가하였다.

이명희(1993)는 한국과 미국 남녀 대학생을 대상

으로 연구하였는데 문화에 관계없이 남성은 여성보다 여성복에서 밝고 여성적인 이미지를 좋아한다고 하였다. 김인숙, 신소진(1994)의 신체노출을 달리한 남성 캐주얼 복장에 대한 연구에서는 노출 차림에 대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예의·정숙성을 좀 더 높게 지각한다고 하였다. 박금옥(1996)의 직물의 시각적 이미지 연구에서는 빨강의 경우 남자는 경직성 이미지, 여자는 단정성 이미지로 지각하였으며 파랑은 남녀 모두 경량성 이미지로 지각하였다. 이미연(1999)의 웨딩드레스의 이미지 지각에 관한 연구에서는 동일한 지각 대상자를 남자는 매력적이고 귀엽게, 여자는 단정하게 지각하였다.

따라서 지각자의 성별에 따라 의복이나 인상에 대한 평가가 달리 나타나며, 여자가 남자보다 지각 수준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측정도구

본 연구는 준실험방법으로 실험설계는 피험자간 (between-subjects) 설계이다. 측정도구는 야구 유니폼 착용자의 인상을 제시하는 자극물과 이에 대한 지각자의 반응을 측정하는 질문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자극물

본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은 야구 유니폼을 착용한 남성의 모습으로 유니폼을 상하의 색, 선 배색, 스타킹 착용 형태에 의해 변화시킨 것이다.

실험에 사용될 야구 유니폼 자극물의 디자인 요소 결정은 99년 국내 프로야구 유니폼 디자인에 근거하였다. 상의는 흰색, 회색(N7.5), 남색(7.5PB5.0/6), 빨강색(7.5R4.0/1), 수직 스트라이프가 선정되었고 하의는 흰색, 검정색, 회색, 수직 스트라이프가 선정되었다. 상의의 목둘레, 소매 끝과 하의 옆선의 선 장식은 남색, 빨강, 검정, 노랑(5Y8.5/1) 등 국내 프로야구 유니폼의 배색 구조를 파악하여 선정하였다. 상의 5가지와 하의 4가지를 설계의 기본으로 하였으나 실험설계의 한계로 많은 수의 자극물을 사

용할 수 없으므로 이 중에서 국내 프로야구 유니폼에 쓰이는 것과 유사한 배색을 고려하여 총 7개의 배색을 택하였다. 또한 흰색 상의와 흰색 하의의 조합에서는 목둘레, 소매 끝, 하의 옆선에 남색을 사용한 것과 빨강색을 사용한 것을 추가하여 선택하였다. 또한 하의의 스타킹 착용 형태에 변화를 주어, 상하의를 같은 색으로 입은 3가지 경우와 상하의를 다른 색으로 입은 1가지 경우를 합한 4가지 조합에서는 검정 스타킹을 하의 위로 올려 착용한 모습을 추가하였다.

자극물에 사용할 모델을 선정하기 위하여 타원형의 표준형 얼굴로서 야구복 착용 실험에 적합한 체형의 남성을 20대 연령층에서 1명 선정하였다. 선정된 모델의 키는 178cm, 몸무게는 68kg이었다. 모델이 흰색 야구 유니폼을 착용한 경우와 유니폼을 착용한 상태에서 스타킹을 하의 위로 올려 착용한 경우의 사진을 찍어 2가지 사진을 제작하였다. 사진의 크기는 10×15cm이었다. 모델의 의복 착용 자세는 일정하게 하고 흰색 모자, 검정색 장갑, 검정색 벨트, 검정색 스파이크를 착용하게 하였다.

사진은 칼라 스캐너를 사용하여 컴퓨터에 입력시킨 후 Adobe photosho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험 목적에 맞게 조작하였다. 배경 색은 연녹색이며 먼셀의 색체계에서 2.5G8.5/2에 해당된다(COS, 1997). 연녹색을 배경 색으로 사용한 이유는 관중이 야구 유니폼을 보는 곳은 야구장이며 야구장에는 녹색의 잔디가 깔려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완성된 자극물의 수는 상하의의 색 조합과 선 배색에 따른 8개의 자극물과 스타킹 착용 형태가 다른 4가지의 자극물을 합한 총 12개이다. 자극물은 12×26cm 크기의 전신 사진으로 칼라 프린터를 사용하여 출력하였다.

완성된 자극물은 B1번에서 B12번까지 기호를 붙였다. B1은 흰색의 상하의, 남색 모자, 목둘레, 소매 끝, 하의 옆선에 남색선을 사용하였다. B2는 흰색의 상하의, 빨강 모자, 목둘레, 소매 끝, 하의 옆선에 빨강선을 사용하였다. B3은 B1에 스타킹을 하의 위로 올려 착용하였다. B4는 회색의 상하의, 회색 모자, 목둘레, 소매 끝, 하의 옆선에 검정-노랑-검정색 선을 사용하였다. B5는 B4에 스타킹을 하위 위로 올

려 착용하였다. B6은 빨강색 상의, 빨강 모자, 흰색 하의, 목둘레, 소매 끝에 검정-흰색-검정색 선을 사용하고, 하의 옆선에 검정색 선을 사용하였다. B7은 빨강색 상의, 빨강 모자, 검정색 하의에 목둘레, 소매 끝에 검정색 선을 사용하고, 하의 옆선에 빨강 선을 사용하였다. B8은 남색 상의, 남색 모자, 흰색 하의에 목둘레, 소매 끝에 흰색 선을 사용하고, 하의 옆선에 남색 선을 사용하였다. B9는 B8에 스타킹을 하의 위로 올려 착용하였다. B10은 남색 상의, 남색 모자, 남색 수직 스트라이프 하의에 목둘레, 소매 끝에 흰색 선을 사용하고, 하의 옆선에 남색 선을 사용하였다. B11은 흑백 수직 스트라이프 상하의에 목둘레, 소매 끝, 하의 옆선에 검정색 선을 사용하였다. B12는 B11에 스타킹을 하의 위로 올려 착용하였다. <그림 1>은 자극물 B7의 유니폼이다.



<그림 1> 자극물 B7의 유니폼

2) 의미미분척도의 형용사쌍 선정

의미미분척도에 사용된 형용사는 자유기술식 응답법과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용어들을 참고로 하여 수집하였다. 자유기술식 응답은 남녀 대학생 24명에게 자극물을 제시하여 사전 조사를 하였다. 1명의 피험자가 3개의 자극물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피험자에게 자극물을 보고 연상되는 모든 형용사를 제한 없이 자유 응답식으로 서술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선행연구(문상련, 이경희, 1994; 이주현, 조금호, 1995; 임지영, 1996; 이향미, 김재숙, 1998;

이명희, 1999; 주소현, 이경희, 1999)에서 사용된 형용사 용어를 수집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것과 피험자가 응답한 용어를 참조하여 5개 차원을 선정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형용사를 택하여 7단계의 의미미분척도를 제작하였다. 각 차원별로 4~5개씩의 문항이 결정되었고 5개 차원은 남성적, 능력, 활동성, 선호 평가, 현시성이었으며 선정된 형용사는 총23쌍이었다.

남성적 차원의 문항은 남성적인-여성적인, 밝은-어두운, 중후한-가벼운, 공격적인-공격적이지 않은, 딱딱한-부드러운 이었고, 능력 차원의 문항은 능력 있는-능력없는, 강한-약한, 대담한-소심한, 힘있는-힘없는 이었다. 활동성 차원의 문항은 활동적인-비활동적인, 적극적인-소극적인, 사교적인-비사교적인, 능동적인-수동적인 이었고, 선호 평가 차원의 문항은 보기좋은-보기싫은, 깔끔한-깔끔하지 못한, 시원한-답답한, 매력적인-매력적이지 않은, 세련된-촌스러운 이었다. 현시성 차원의 문항은 눈에 띄는-눈에 띄지 않는, 산뜻한-우중충한, 독특한-평범한, 강렬한-무난한, 화려한-수수한 이었다.

남성적, 능력, 활동성, 선호 평가, 현시성의 Cronbach의 α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신뢰도는 .52, .73, .72, .83, .72 이었다. 대체로 α 신뢰도는 만족할 만 하였으나 남성적 차원의 신뢰도가 다소 낮은 편이었다.

2.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피험자는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20, 30대의 남녀 각각 144명씩 총 288명이었다. 각 자극물에 남녀 각각 12명씩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피험자는 자극물을 보고 각 쌍의 형용사에 대하여 자극물에서 받은 인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야구복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12개의 자극물을 보고 가장 좋은 것과 두 번째로 좋은 것, 가장 싫은 것과 두 번째로 싫은 것을 각각 선택하게 하였으며, 선택된 것은 각각 12, 11, 1, 2점의 점수를 주었다. 자료수집 시기는 1999년 10월이었다.

자료분석은 SPSS를 사용하여 전산처리하였으며 통계분석방법으로는 Cronbach의 α 신뢰도 계수 산

출. 빈도분석, t-검증, χ^2 검증, 이원변량분석, 일원 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야구 유니폼의 이미지 평가

야구 유니폼의 자극물과 지각자의 성별에 따른 이미지 평가의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주효과를 볼 때 남성적, 능력, 활동성, 선호 평가, 현시성 차원은 자극물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또한 2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도 없었다. 자극물에 따라 이미지의 모든 차원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어 각 평균치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일원 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각 표에서 자극물의 점수가 낮을수록 그 이미지의 특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3>에서 보면 남성적 이미지 평가에서 빨강색 상의와 검정색 하의(B7)를 착용하였을 때는 c집단에 속하여 가장 남성적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남색 상의를 착용하였을 때(B8, B10)는 b집단과 c집단에 속하여 비교적 남성적으로 보았으며 흰색 상의의(B1, B2, B3), 흑색 스트라이프 상의의(B11, B12)를 착용하였을 때는 a집단에 속하여 남성적이지 않게 평가되었다. 남색에 속하는 집단(B8, B10)이 남성적으로 평가된 것은 유경숙(1996)의 연구에서 남색이 남성적으로 평가되었던 결과를 지지하였다. 또한 B7이 가장 남성적으로 평가되어 빨강색 의복에 검은 머리색

이 조합되었을 때 가장 남성적이며 대담한 사람으로 지각되었다는 Mahannah(1968)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능력 이미지에서 회색 상의의(B4)를 착용하였을 때는 a 집단에 속함으로써 가장 능력없게 보였고 남색 상의와 남색 스트라이프 하의(B10)를 착용하였을 때와 빨강색 상의와 검정색 하의(B7)를 착용하였을 때는 d집단에 속하여 가장 능력있게 보았다. 또한 회색에 속하는 B4와 B5는 모두 능력이 낮게 평가되었는데 이것은 이혜숙, 김재숙(1998), 이명희, 강승희(1998)의 연구에서 회색이 무능력하게 평가되었던 결과와 일치하였다.

한편 남색에 속하는 B8, B9, B10은 모두 능력이 높게 평가되는 집단에 속하였으며 이는 이혜숙, 김재숙(1998)의 연구에서 남색이 가장 자신감있고 능력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던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빨강색에 속하는 B6, B7이 모두 능력이 높게 평가되는 집단에 속하는 것은 이명희, 강승희(1998)의 연구에서 빨강색이 가장 능력있게 평가되었던 결과와 일치하였다.

활동성 이미지에서 빨강색 상의와 흰색 하의(B6)를 착용하였을 때는 d집단에 속하여 가장 활동적으로 평가되었으며 회색 상의의(B4)를 착용하였을 때는 a집단에 속하여 가장 활동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선행연구(유경숙, 1996)에서 빨강색이 무채색에 비해 활동적이라는 결과와 일치하였고, 밝은 의복색이 활동적이고 어두운 의복색이 비활동적으로 평가되었던 결과(이정옥, 권미정, 박영실, 1995)를 지지하였다.

선호평가 이미지에서 남색 상의와 남색 스트라이프 하의(B10)를 착용하였을 때와 남색 선이 들어간

<표 2> 자극물과 지각자의 성별에 따른 이미지 평가의 차이

(N=288)

변량원		df	남성적 F	능력 F	활동성 F	선호평가 F	현시성 F
주효과	자극물(A)	11	4.95**	3.67**	3.70**	4.64**	6.37**
	성별(B)	1	.08	.00	3.18	.58	.21
상호작용	A × B	11	1.31	.70	.81	1.03	.82
잔차		264					

**p<.01

<표 3> 자극물에 따른 이미지 평가의 차이

(N=288)

자극물	B2	B1	B12	B6	B11	B3	B4	B9	B5	B8	B10	B7
남성적	4.61	4.60	4.39	4.38	4.35	4.34	4.18	4.08	3.81	3.76	3.71	3.45
F=4.91**												
자극물	B4	B5	B2	B1	B12	B3	B11	B8	B9	B6	B10	B7
능력	4.50	4.31	4.15	4.01	3.82	3.81	3.77	3.73	3.66	3.38	3.26	3.15
F=3.76**												
자극물	B4	B5	B2	B12	B1	B8	B9	B11	B3	B7	B10	B6
활동성	4.27	4.11	3.66	3.50	3.50	3.48	3.32	3.26	3.25	3.19	3.18	2.86
F=3.73**												
자극물	B7	B4	B5	B2	B9	B12	B3	B11	B6	B8	B1	B10
선호평가	4.70	4.56	4.20	4.03	3.68	3.64	3.63	3.48	3.44	3.44	3.23	3.22
F=4.65**												
자극물	B4	B5	B8	B3	B1	B12	B11	B10	B2	B9	B7	B6
현시성	5.15	4.79	4.53	4.39	4.35	4.33	4.32	4.22	4.18	4.05	3.47	3.14
F=6.44**												

*p<.05, **p<.01, a~d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결과

흰색 상하의(B1)를 착용하였을 때, 남색 상의와 흰색 하의(B8)를 착용하였을 때는 d집단에 속하여 가장 호의적으로 지각되었다. 또한 빨강색 상의와 검정색 하의(B7)를 착용하였을 때와 회색 상하의(B4)를 착용하였을 때는 a집단에 속하여 선호 평가 차원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보았다. 남성적 차원과 능력 차원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던 빨강색 상의와 검정색 하의(B7)를 착용하였을 때가 선호 평가 차원에서는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된 것은 빨강색과

검정색은 강하고 적극적인 이미지를 주지만 빨강색과 검정색의 배색은 강렬한 대비조화이기 때문에 세련된 이미지로 지각되지 못한 것으로 본다. 이는 의복 상의와 하의의 조화에 대한 지각자의 인상형성이 분리된 하의나 상의에 의한 긍정적 인상 평가와는 매우 다르다는 Gibbins와 Schneider(1980)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한편 남색에 속하는 B10, B8과 흰색 상하의에 남색 선을 장식한 B1이 긍정적으로 평가된 것은 남색

이 일반적으로 스포츠 웨어에 자주 쓰이는 친근한 색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시성 이미지 평가에서 현시성 차원은 네 집단으로 나뉘었으나 빨강색 상의와 검정색 하의(B7)를 착용한 경우와 빨강색 상의와 흰색 하의(B6)를 착용한 경우는 d집단에만 속하여 가장 현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회색 상하의에 속하는 집단(B4, B5)은 a집단에만 속하여 가장 현시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빨강색에 속하는 B6, B7이 가장 현시성이 높은 집단에 속하는 것은 이주현, 조공호(1995), 차미승(1992)의 연구에서 빨강색이 눈에 띄고 두드러진다는 내용을 지지하였으며 대비조화가 유사조화보다 주의집중적임(이현화, 박찬부, 1997)을 확인하는 결과였다. 또한 회색에 속하는 B4, B5가 가장 현시성이 낮다고 평가된 것은 선행 연구(이혜숙, 김재숙, 1998)에서 회색은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볼 때 야구 유니폼은 5개 이미지 차원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각 자극물 디자인 조작의 단서인 색에 따른 이미지 평가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차이를 좀 더 자세히 살

펴보기 위하여 상하의의 배색을 달리한 두 자극물의 차이를 t-검정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면 흰색 상하의(B1)를 착용하였을 때와 남색 상의와 흰색 하의(B8)를 착용하였을 때는 남성적 차원의 평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즉 지각자는 남색 상의와 흰색 하의를 착용한 경우를 흰색 상하의를 착용한 모습보다 더 남성적으로 지각하였다.

흰색 상하의(B2)를 착용하였을 때와 빨강색 상의와 흰색 하의(B6)를 착용하였을 때는 능력 차원, 활동성 차원, 현시성 차원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지각자는 빨강 상의와 흰색 하의를 착용한 모습을 흰색 상하의를 착용한 모습보다 능력있고 활동적인 것으로 보았고 현시성도 더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흑백 스트라이프 상하의(B11)를 착용하였을 때와 남색 상의와 스트라이프 하의(B10)를 착용한 모습의 비교에서는 남성적 차원에서만 유의적인 차이가 있어 지각자는 남색 상의와 스트라이프 하의를 착용하였을 때를 스트라이프 상하의를 착용한 모습

<표 4> 유니폼 상하의 및 선 배색에 따른 이미지 평가의 차이

(N=288)

자극물			이미지 차원				
기호	공통점	차이점	남성적	능력	활동성	선호평가	현시성
B1	흰색 하의	흰색 상의	4.60	4.01	3.50	3.23	4.35
B8		남색 상의	3.76	3.73	3.48	3.44	4.53
t			4.71**	1.04	.07	-.76	-.54
B2	흰색 하의	흰색 상의	4.61	4.15	3.66	4.03	4.18
B6		빨강 상의	4.38	3.38	2.86	3.44	3.14
t			.95	2.87**	2.90**	1.98	3.42**
B11	스트라이프 하의	스트라이프 상의	4.35	3.77	3.26	3.48	4.32
B10		남색 상의	3.71	3.26	3.18	3.22	4.22
t			-2.50*	-1.46	-.27	-.79	-.32
B6	빨강 상의	흰색 하의	4.38	3.38	2.86	3.44	3.14
B7		검정 하의	3.45	3.15	3.19	4.70	3.47
t			3.37**	.80	-1.20	-4.17**	-1.16
B1	흰색 상하의	남색선	4.60	4.01	3.50	3.23	4.35
B2		빨강선	4.61	4.15	3.66	4.03	4.18
t			-.04	-.47	-.54	-2.66*	.53

*p<.05, **p<.01

보다 더욱 남성적으로 지각하였다.

빨강색 상의와 흰색 하의(B6)를 착용하였을 때와 빨강색 상의와 검정색 하의(B7)를 착용하였을 때의 비교에서는 남성적 차원, 선호 평가 차원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지각자는 빨강색 상의와 검정색 하의를 착용한 모습을 더 남성적으로 보았고 빨강색 상의와 흰색 하의를 착용한 모습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흰색 상하의에 남색 선을 넣은 경우(B1)와 흰색 상하의에 빨강색 선을 넣은 경우(B2)의 비교에서는 선호 평가 차원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즉 지각자는 흰색 상하의에 남색 선을 넣은 경우를 빨강색 선을 넣은 경우보다 더욱 선호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야구 유니폼의 색은 각 차원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어 같은 유형이라도 상하의 배색과 선 장식에 따라 달리 평가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남색은 남성적 차원, 빨강색은 현시성 차원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각 차원에서 상하의를 같은 색으로 착용한 경우보다 상하의를 다른 색으로 착용한 경우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부가적인 관심으로 하의의 스타킹 착용 형태에 따른 이미지 평가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하의의 스타킹 착용 형태를 달리한 두 자극물의 이미지 평가의 차이를 t-검증으로 조사한 결과 스타킹 착용 형태를 달리한 야구 유니폼의 이미지 평가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즉 지각자는 스타킹을 하의 위로 올려 착용하는 스타일을 하의 안에 넣어서 착용하는 일반적인 스타일과 구분하지 않고 같은 이미지로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야구 유니폼의 선호도

야구 유니폼의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치를 조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전체 평균을 보면 남색 상의와 남색 스트라이프(B10)를 착용하였을 때가 가장 선호되었고 남색 상의와 흰색 하의(B8)를 착용하였을 때가 두 번째로 선호되었다. 또한 회색 상하의에 검정 스타킹(B5)을 보이게 착용하였을 때는 가장 선호도가 낮았으며 회색 상하의(B4)를

입은 것은 그 다음으로 낮은 선호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전체적으로 스타킹을 하의 안으로 넣어 스타킹이 안 보이게 착용한 스타일이 스타킹을 보이게 착용한 스타일보다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호도에 있어서 지각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표 5)를 보면 B1, B8, B9, B11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즉 흰색 상하의에 남색 선을 넣은 유니폼(B1)을 착용하였을 때와 흑백 스트라이프 유니폼(B11)을 착용하였을 때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체적으로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여자보다 높은 남자가 야구 관람이나 각종 매체를 통해 일반적인 홈경기용 유니폼의 색인 흰색과 스트라이프의 유니폼을 자주 접한 데서 오는 영향으로 생각된다. 또한 남색 상의와 흰색 하의를 착용한 B8과 B8의 유니폼에 스타킹을 보이게 착용하였을 때(B9)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성별에 따른 야구 유니폼 선호도의 차이

성별 자극물	남 (n=144)	여 (n=144)	t	전체 (N=288)	순위
B1	6.86	6.34	2.16*	6.60	7
B2	5.53	5.72	-.63	5.62	10
B3	6.48	6.33	.65	6.41	8
B4	4.67	4.76	-.25	4.72	11
B5	4.20	4.61	-1.21	4.41	12
B6	6.74	6.90	-.51	6.82	4
B7	6.04	6.02	.04	6.03	9
B8	7.36	8.31	-3.19**	7.84	2
B9	6.40	6.98	-2.08*	6.69	5
B10	8.34	8.93	-1.76	8.63	1
B11	8.45	6.78	5.39**	7.61	3
B12	6.92	6.39	1.88	6.66	6

*p<.05, **p<.01

3. 야구 유니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미지

성별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미지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응답자의 수가 10명 이상인 형용사

를 택하여 χ^2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성별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미지는 유의한 관계가 있었으며 특히 여자가 남자보다 '활동적인' 이미지를 더 중요시하였고 남자가 여자보다 '강렬한'과 '세련된' 이미지를 더 중요시하였다. 즉 여자가 남자보다 야구복의 실용적인 측면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해석된다.

전체적인 빈도를 비교한 결과 '활동적인'이 36.2%로 가장 중요한 이미지로 나타났다. 이는 야구 유니폼이란 무엇보다도 경기 중에 착용하는 운동복이라는 개념이 작용한 결과로 생각된다. 그 다음으로 '강렬한'이 8.6%, '힘있는'이 8.2%로 나타났는데 이는 프로 스포츠의 목적은 승리이기 때문에 시각적

<표 6> 성별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미지와의 관계 () = col. %

성별 이미지	남	여	전 체
활동적인	27 (22.1)	66 (48.9)	93 (36.2)
강렬한	17 (13.9)	5 (3.7)	22 (8.6)
힘있는	9 (7.4)	12 (8.9)	21 (8.2)
세련된	15 (12.3)	3 (2.2)	18 (7.0)
깔끔한	7 (5.7)	10 (7.4)	17 (6.6)
적극적인	10 (8.2)	7 (5.2)	17 (6.6)
공격적인	7 (5.7)	9 (6.7)	16 (6.2)
능동적인	5 (4.1)	11 (8.1)	16 (6.2)
시원한	11 (9.0)	3 (2.2)	14 (5.4)
산뜻한	8 (6.6)	5 (3.7)	13 (5.1)
눈에 띄는	6 (4.9)	4 (3.0)	10 (3.9)
전 체	122 (100.0)	135 (100.0)	257 (100.0)

$\chi^2 = 39.996^{**}$ df=10

**p<.01

으로도 강렬하고 힘있게 보이는 이미지를 중요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 다음으로 '세련된'이 7.0%, '깔끔한'이 각각 6.6%로 나타났는데 이는 야구 유니폼도 의복의 개념으로서 심미성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 다음으로 '적극적인'이 6.6%, '공격적인'이 6.2%, '능동적인'이 6.2%로 다소 중요한 이미지로 나타났다.

V. 결 론

본 연구는 국내 프로야구단의 유니폼 디자인을 조사하여 유니폼 디자인과 지각자의 성별에 따른 유니폼의 이미지 평가를 규명하며, 야구 유니폼의 선호도, 야구 유니폼에서 중요시되는 이미지를 조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 프로야구 유니폼 디자인의 특징을 살펴보면 홈경기용 유니폼은 흰색 상하의, 또는 수직 스트라이프 상하의였으며 원정경기용 유니폼은 상의만 바퀴입거나 회색을 입는 방식 등이 주를 이루었다. 언더셔츠, 스타킹, 벨트, 모자, 스파이크, 원정경기용 상의는 대개 같은 색이었으며 상의의 목둘레, 어깨선, 소매 끝과 하의의 옆선에는 랩셀트립의 선 장식을 사용하여 활동적인 이미지를 추구하였다.

야구 유니폼 디자인에 따른 이미지 평가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2종류의 자극물에 따른 이미지 평가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남성적, 능력, 활동성, 선호 평가, 현시성 등 모든 차원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남성적 차원에서 빨강색 상의와 검정색 하의를 착용하였을 때가 가장 남성적으로 지각되었고 남색 상의를 착용하였을 때도 비교적 남성적으로 지각되었다. 능력 차원에서 빨강색 상의와 검정색 하의를 착용하였을 때와 남색 상의와 남색 스트라이프 하의를 착용하였을 때가 가장 능력있게 평가되었다. 또한 회색 상하의를 착용하였을 때는 가장 능력없게 평가되었다. 활동성 차원에서는 빨강색 상의와 흰색 하의를 착용하였을 때가 가장 활동적으로 평가되었으며 회색 상하의를 착용하였을 때는 가장 비활동적으로 지각되었다. 선호 평가 차원에서는

남색 상의를 착용하였을 때와 남색 선을 넣은 흰색 상하의를 착용하였을 때가 가장 긍정적으로 지각되었으며 빨강색 상의와 검정색 하의를 착용하였을 때가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현시성 차원에서는 빨강색 상의를 착용하였을 때가 가장 현시성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회색 상하의를 착용하였을 때가 가장 현시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체로 상하의를 다른 색으로 착용한 경우가 같은 색으로 착용한 경우보다 더 긍정적으로 지각되었다.

선 장식에 있어서 남색 선을 넣은 흰색 상하의를 착용하였을 때가 빨강색 선을 넣은 흰색 상하의를 착용하였을 때보다 선호 평가 차원에서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스타킹 착용 형태에 있어서 스타킹이 하의 밖으로 노출된 스타일과 하의 안으로 감춰진 스타일에 따른 이미지 평가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둘째, 야구 유니폼 디자인에 따른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남색 상의와 남색 스트라이프 하의를 착용하였을 때가 가장 선호되었고 남색 상의와 흰색 하의를 착용하였을 때가 두번째로 선호되었다. 또한 회색 상하의를 착용한 것은 가장 선호도가 낮았다.

셋째, 성별에 따른 야구 유니폼 선호도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부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남자는 여자보다 남색 선을 넣은 흰색 상하의를 착용하였을 때와 흑백 스트라이프 상하의를 착용하였을 때를 더 선호하였고 여자는 남자보다 남색 상의와 남색 스트라이프 하의를 착용하였을 때와 남색 상의와 흰색 하의를 착용하였을 때를 더욱 선호하였다.

넷째, 야구 유니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활동적인'이 가장 중요한 이미지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강렬한', '힘있는', '세련된'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미지와는 유의한 관계가 있었으며 특히 여자가 남자보다 '활동적인' 이미지를 더 중요시하였고 남자가 여자보다 '강렬한'과 '세련된' 이미지를 더 중요시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야구 유니폼에서 빨강색은 능력있고 활동적이며 눈에 두드러지고, 남색은 가장 선호되며, 회색은 능력없고 비활동

적이며 현시성이 낮은 것으로 지각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상하의를 다른 색으로 착용한 경우가 같은 색으로 착용한 경우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여자는 남자에 비해 활동성과 같은 야구복의 실질적인 이미지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따라서 야구 유니폼은 디자인과 색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를 형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표집 대상을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20, 30대의 남녀로 한정하였고 피험자의 선정에 있어서도 편의표집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전체 연령층의 집단에 일반화시키는 데는 제한이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그림 자극물 제작 기준은 국내 프로야구 유니폼 디자인에 근거하였는데 이 그림 자극물에 대한 이미지 평가와 선호도 평가가 지각자가 좋아하는 프로야구단의 유니폼과 유사한지 아닌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야구 유니폼의 디자인 요소를 색 외에도 트리밍, 로고 등을 체계적인 범주로 나누어 조사하는 것이 필요시 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상의의 로고를 배제하여 이미지 평가를 실험하였는데 실제로 로고는 야구 유니폼의 중요한 디자인 요소이며 특히 상하의가 흰색이어야 한다고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홈경기용 유니폼에 있어서 로고의 디자인은 시각적으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지역 연고제를 채택하고 있는 1999년 현행 프로야구 제도에서 피험자의 거주지를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하여 폭 넓게 조사하는 것이 필요시된다.

참고문헌

- 강혜원(1995). 의상사회심리학. 개정판. 서울: 교문사. pp.39, 43-52, 70, 327.
- 김인숙, 신소진(1994). 신체노출을 달린 남성 캐주얼 복장에 대한 남·녀 대학생의 인상형성. 한국의류학회지, 18(4), pp.501-514.
- 박금옥(1996). 색채와 무늬에 따른 직물의 시각적 이미지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박희연(1988). 야구복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 문삼련, 이경희(1994). 의복형태와 물방울 무늬 공간 변화에

- 다른 이미지의 시각적 평가. *한국의류학회지*, 18(1), pp.3-14.
- 유경숙(1996). 성역할 정체감과 의복 디자인 선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유홍락, 천일평, 이종남(1999). 한국야구사. 서울: 지성사. pp.64-65, 73, 89, 536.
 - 이명희(1993). 한국과 미국 남녀 대학생의 의복 이미지 선호도와 성역할 정체감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7(3), pp.367-379.
 - _____(1999). 노년여성의 한복 및 양장 착용과 관찰자의 연령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복식, 43, pp. 187-202.
 - 이명희, 강승희(1998). 장신구와 재킷 색이 여성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2(8), pp.1111-1121.
 - 이미연(1999). 디자인 요소에 따른 웨딩드레스의 이미지 지각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정옥, 권미정, 박영실(1995). 한국 도시 여성의 얼굴 색과 의복 색과의 배색 이미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2), pp.167-180.
 - 이주현, 조공호(1995). 의상 디자인 요소가 의복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제1보): 의복 형태와 색채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5), pp.747-764.
 - 이향미, 김재숙(1998). 남상 고등학교 교사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의복 격식차림, 색 및 맥락의 영향:대전 지역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2(3), pp.312-320.
 - 이현화, 박찬부(1997). 의복단서, 지각자 변인이 여자 한복 착용자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I):의복단서를 중심으로. 복식, 32, pp.313-336.
 - 이혜숙, 김재숙(1998). 복식색과 색조합의 이미지 지각(제1보): 여자 저고리, 치마를 중심으로 한 준실험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5), pp.597-606.
 - 임지영(1996). 넥타이 무늬와 양복과의 배색에 따른 남성복 이미지의 시각적 평가.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대학원.
 - 주소현, 이경희(1999). 의복, 배경의 조합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 연구(제 1보). *한국의류학회지*, 23(1), pp.78-89.
 - 차미승(1992). 의복형태와 색채 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와 분석.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COS : Color System(1997). 한국유행색산업회.
 - 한국야구위원회, 대한야구협회(1994). 공식야구규칙, pp.1, 5-10.
 - Delong, M. R., Salusso-Deonier, C., & Larntz, K.(1983). Use of perceptions of female dress as an indicator of role definitio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1(4), pp. 327-336.
 - Francis, S. K., & Evans, P. K.(1987). Effect of hue, value, and style of garment and personal coloring of model on person perception. *Perceptual and Motor Skills*, 64(2), pp.383-390.
 - Gibbins, K., & Schneider, A.(1980). Meaning of garment: Relation between impression on outfit and message carried by it's comport garment. *Perceptual and Motor Skills*, 51, pp.287-291.
 - Gibson, L. A., & Balkwell, C.(1990). Effect of harmony between personal and coloring on perceptions of a women's employment potential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8(2), pp.23-28.
 - Horn, M., & Gurel, L. M.(1981). *The second skin*. 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 pp.161, 165, 175, 179-180.
 - Kaiser, S. B.(1985).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pp.158, 228-230, 244-247.
 - Koppett, L.(1998). *Koppett's concise history of major league baseball*.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pp.3-6.
 - Mahannah, L.(1968). Influence of clothing color on the perception of personality.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Nevada, cited by Horn, M., & Gurel, L. M.(1981). *The Second Skin*, Boston: Houghton Mifflin Co., p.165.
 - Rosencranz, M. L.(1962). Clothing symbolism. *Journal of Home Economics*, 54(1), pp.18-22.
 - Schlossberg, D.(1980). *The baseball catalog*. New York: Jonathan David Publishers, Inc., pp.2-4, 67-70.
 - Sweat, S. J., & Zentner, M. A.(1985). Female appearance presentation: Gender differences in social attribution and situational choic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4(2), pp.175-186.
 - Winakor, G., & Navarro, R.(1987). Effect of achromatic value of stimulus on response to women's clothing style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5(2), pp.40-48.
- <인터넷 주소>
- <http://www.seoul.co.kr>
 - <http://hanwhaeagles.com>
 - <http://www.hd-unicorns.co.kr>